Dear my wonderful prayer group of the board members of JSBMF,

I first want to give thanks, praise, and glory to God. Of course, I cannot forget to thank you all for the prayers and various ways you’ve supported us in Jeju Korea. But Please understand that I could not finish this letter in English as well, since I'm not good that much at English writing.

Thank you and God bless you all.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봄의 동역자 여러분께,

먼저, 제주의 봄꽃이 화창한 봄 하늘 아래 산과 들마다 각각의 색깔을 드러내는 삼월입니다. 아직 한라산 중턱의 찬 공기는 등산객들의 옷깃을 여미게 하지만, 삼월의 기운은 이미 추위를 한풀 꺽어 놓았습니다. 저희 다봄집도 창문의 방풍 뽁뽁이 등을 제거하는 봄맞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봄의 시작과 함께 저희를 약간 바쁘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갑작스럽게 새 식구 한 분이 저희 다봄집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머물던 한 장애 청년을 통해 알게 된 장애인 고용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찾아가 만나 데려온 자매입니다. 제주 출생 84년생, 이름은 양성임으로 약간의 장애를 지닌 분인데, 사연이 생겨 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뛰쳐 나온 분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다봄집에서는 노숙인들을 돌보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 하에, 부탁을 받고 약속 장소로 나갈 때까지만 해도 다른 대체 장소를 소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를 만나 대화를 해보니, 노숙 생활을 막 시작한 상태였고, 조금만 도우면 곧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곧 바로 저희 다봄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일단 주소지 이전 및 서류 정리와 건강검진 등의 일로 며칠째 여기저기를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침마다 드리는 저희 다봄집의 '느새'예배와 성경읽기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고, 본인 스스로 장애인 회사에 Part-time으로 일을 하려고 할 정도로 의욕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돈버는 것이 급한 일은 아니지만, 적당한 일을 하는 것도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 주 전도초청잔치에 초청받아 간 탈북자 교회에서 김종섭 군(예전에 저희 다봄집에 함께 머물던 청년)을 만났습니다. 몇 주 전부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며 제게 달려와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김종섭 군은 (중간에 교도소에서 약 10개월 복역하고 나온 기간까지) 약 일 년 반 이상 저희 다봄집에서 적을 두고 살다가 약 6개월 전에 독립해 나갔는데, 그후 직접 만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섭 군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간혹 잘 지낸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김 군이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며, 그동안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께 열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무척 기뻤습니다.

여전히 토요영어교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4명이던 학생 수가 7명으로 늘어, 수준별로 시간대를 달리 해 두 반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그에 따른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 여름 VBS 캠프를 위한 준비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여름 VBS 캠프를 진행할 곳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서너 군데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를 위한 대책은 물론 팀멤버 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회가 닿는 대로 다른 선교지를 방문해 캠프를 진행하려는 계획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부탁할 기도제목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비자 문제로 미국에 잠시 다녀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미국 방문에는, 여기 다봄집엔 돌볼 사람도 있고 할 일도 남아 있어, 제 아내는 함께하지 못하고 부득이 저 혼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일정은 3월 14일~4월 초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토요 교실에는, 감사하게도 지난 겨울 캠프 때 팀멤버로 섬겨주셨던 김경옥 자매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했으며, 이 외에도 제주에 머물고 계시는 지인 선교사님께서 함께 수고해주시기로 하셔서, 그나마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게 되었음은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다봄집에서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혼탁한 세상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주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글을 받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미국에 계시는 분들과는 저의 미국 방문 기간 중에 기회가 닿는 대로 직접 만나 주님의 은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서귀포 다봄집에서,

임철현, 임윤실 선교사 올림

PS.: (1)송구스런 부탁이지만, 혹시 저의 미국 방문 중에 꼭 뵙기 원하시는 분은 제게 미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도록 만나 뵐 수 있도록 최대한 일정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그리고 첨부한 사진은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 양 자매님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제주 방문을 초청 및 유혹(?)하기 위한 저희 집 주변 산방산 꽃사진입니다.



